

최준(崔浹)과 임근수(林根洙)의 언론사 연구

김복수(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교수)

1. 최준의 언론사 연구

1-1. 최준의 생애와 언론 활동

최준의 호(號)는 야농(野農)이고 본관은 경주(慶州)이다. 1913년 11월 3일 서울 효제동(孝悌洞, 옛 지명 ‘느릿굴 안’)에서 부친 최기선(崔箕善)씨와 모친 김아지(金阿只)여사의 장남으로 출생하였다. 슬하에 2남 1녀를 두었다.

최준은 1939년 일본으로 유학하여 29세가 되는 1942년 3월 25일 일본 메이지(明治)대학 법학부 신문고등연구과를 졸업하였다. 졸업 후에는 잠시 일본 도쿄(東京)에서 잡지 기사를 역임한 바 있으며 귀국 후에는 1947년부터 언론학과와 언론계에서 교육, 연구, 실무 등 다방면에 걸쳐 언론 활동을 전개하였다. 최준의 생애를 언론학계 활동(교육 활동, 연구 활동)과 언론계 실무 활동으로 나누어 연대기적으로 간략히 기술하여 보면 아래와 같다.¹⁾

일본에서 귀국한 최준의 첫 교육 활동은 광복산(郭福山)이 창설한 조선신문학원에서 강의를 하는 것이었다. 당시 우리나라는 광복과 함께 맞은 해방 공간에서 정국 주도권을 둘러싼 정파적·이념적 대립이 극심하던 시기였으며 그 영향으로 정파적 언론현상이 만연하고 정치와 언론, 나아가서는 언론 간 대립과 갈등 양상이 매우 극심하던 때였다. 따라서 이 시기에는 급증하는 언론현상과 나날이 그 대립 양상이 첨예화 되어가는 언론의 막중한 역할을 담당할 언론인의 양성 및 재교육이 시급한 시대적 과제였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광복산(郭福山, 당시 동아일보 사회부장)이 1947년 4월 5일 기자 양성을 목적으로 한 대학원 수준의 신문학 교육(교과과정은 신문학 이론과 실제 과목 30%, 인문사회과학 분야의 교양과목 50%, 시사영어 및 각 분야 특강 20%로 구성²⁾)을 하기 위해 사단법인으로 조선신문학원(후에 서울신문학원으로 개칭)을 창설하였고, 최준은 여기서 한국신문사 과목을 담당하는 강사로 교육 활동을 시작하였다.

1954년 3월 국내 최초로 홍익대학이 정규 신문학과 설치 허가를 받았고(초대 학과 주임교수 광복산) 다음 해인 1955년부터 학생을 모집하였는데, 최준은 1955년

1) 최준의 언론사 연구는 참고문헌에 소개된 여러 논저를 참고하여 재구성한 것이다. 이 가운데 특히 야농 최준 교수 화갑기념논문집 편찬위원회가 간행한 『야농 최준 교수 화갑기념논문집』(중앙대학교 출판국, 1973년)의 “최준 교수 연보”와 최진우의 “최준 교수의 학문과 인간”(차배근 외, 희관 임근수 박사 화갑기념논문총 『한국신문학 50년사』, 정음사, 1977년)이 귀중한 자료로서 집필에 크게 도움을 주었다.

2) 이와 관련하여 임근수는 “한국신문학사 서설”(『언론과 역사』, 정음사, 1984년, 526쪽)에서 “강의 교과목은 대체로 신문학(이론 및 실과과목이 각각 절반씩) 관계가 절반, 나머지 절반은 인접 인문, 사회과학 분야의 교양 과목으로 편성되었다.”고 기술하고 있다.

홍익대학 신문학과 부교수로 임용되어 대학에서의 교육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다. 1957년 4월 중앙대학교 법정대학 신문학과 설립과 동시에 광복산이 중앙대학교 신문학과 주임교수로 자리를 옮긴 후 최준은 광복산의 뒤를 이어 홍익대학 신문학과를 맡아 운영하였다. 1962년 홍익대학의 신문학과가 폐과된 이후에는 중앙대학교 법정대학 신문학과(1958년 창설)로 자리를 옮겨(재학생도 함께) 정년까지 중앙대학교에서 교육 활동을 계속하였다. 또한 1963년 3월 서울대학교 신문연구소 창설 이후 8년간 강사로 출강하였으며, 1970년 3월부터 1976년까지 6년 동안은 중앙대학교 대학신문인 『중대신문』 주간을 맡아 학생 기자들을 지도하였다. 특히 중앙대학교에 재직 중에는 대학원 신문학 석사과정을 국내에서 처음으로 개설하고, 특수대학원(야간대학원)의 정규과정은 물론 연구과정에 매스 커뮤니케이션 전공을 설치하는 데도 큰 공헌을 하였다. 이와 함께 한국신문학회 이사(1959)와 제3대 회장(1971) 등을 역임, 초기 한국 언론학 성립, 발전, 교육 및 학회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최준의 연구 활동은 크게 논문과 저서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발표 논문은 “한제국신문(韓帝國新聞)의 대립상(對立相)”(『신천지(新天地)』, 1947년 2월), “기관지의 운명”(『신문평론』, 1974년 8월) 등을 비롯하여 모두 50여 편에 이른다. 그의 발표 논문은 “조선의 필화잡고”(『신천지』, 1948년 2월), “한성순보에 대한 사적고찰”(향토 서울, 1958년 5월), “고종시대의 커뮤니케이션형태 고찰”(『사학연구』, 1959년 4월), “한국신문사의 서설”(『신문학보』, 1960년 4월), “한성신보의 사명과 그 역할”(『신문연구』, 1961년 4월), “군국일본의 대한언론정책”(『아세아연구』, 1961년 6월), “교포신문과 일본의 침략정책”(『법정논총』, 1962년 12월), “한제국시대의 출판연구”(『법정논총』, 1963년 12월), “일식민지하의 출판연구”(『신문연구소학보』, 1964년 12월), “한국신문 해방20년사”(『신문연구』, 1965년 11월), “경향신문의 법정투쟁”(『오종식화갑기념논문집』, 1967년 7월), “식민통치시대의 언론투쟁”(『법정논총』, 1968년 2월), “계몽가형 애국지사 장지연”(『나라사랑』, 1971년 12월), “문필구국의 선봉장 박은식”(『나라사랑』, 1972년 9월), “월남선생의 언론활동”(『나라사랑』, 1972년 12월) 등이 있다. 이와 같은 최준의 논문은 대체로 한국 신문과 출판에 대한 역사적, 정책적 연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외에도 “신문정비의 방법론”(『새벽』, 1955년 1월), “교육상으로 본 신문학습”(『새교실』, 1956년 6월), “Press Law에 관한 고찰”(『법정논총』, 1960년 11월), “교육방송론”(『법정논총』, 1965년 2월), “프라이버시권에 관한 고찰”(『법정논총』, 1966년 2월), “법정모욕과 취재원의 보호”(『법정논총』, 1967년 2월), “잡지기능론”(『세등』, 1968년 7월), “출판과 윤리”(『신문학보』, 1971년 12월) 등과 같은 논문을 발표하였다. 이는 최준의 연구 관심 폭이 신문정비, 신문학습, 언론법, 교육방송, 잡지 등에 이르기까지 매우 넓다는 것을 말해준다.

최준의 저서는 『위대한 아브라함 · 링컨』(민조사, 1949년 4월), 『한국신문사』(일조각, 1960년 3월), 『방송론』(일조각, 1965년 3월), 『한국신문사논고(韓國新聞史論攷)』

』(일조각, 1976년 4월) 등 단독저서 4권과 『성서와 한국근대화문화』(대한성서공회, 1960년 9월), 『한국의 신문윤리』(한국신문윤리위원회, 1965년 10월) 등 2권의 공동 저서가 있다. 이 가운데 특히 심혈을 기울여 집필한 대표적 저서는 『한국신문사』이다. 또한 기 발표한 한국 신문의 역사와 관련된 연구 논문을 엮어 편찬한 『한국신문사논고』와 한국 방송의 급속한 발전과 이에 따른 학생들의 방송에 대한 높은 연구 관심을 채워주기 위해 방송의 이론과 실제의 여러 문제를 다룬 방송학 개론서인 『방송론』도 그의 주요한 저서로 꼽을 수 있을 것이다.

최준의 언론계 현업에서의 활동은 6.25전쟁 중 환도한 후 부산 피난에서 돌아와 코리아 타임즈(Korea Times) 출판국장(1950년)을 역임하면서 이해창(李海暢), 강주진(姜周鎭, 전 국회도서관장) 등과 함께 한국연감(韓國年鑑) 발행을 추진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최준은 계속해서 유엔군총사령부 민간정보교육국 편수관(1951년), 서울중앙방송국 일어방송 촉탁(1955년), 서울특별시 문화위원회 언론분과위원장(1960년), 국제방송국 방송자문위원회 전문위원(1961년), 공보부 공보자문위원회 방송분과 위원(1963년),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위원(1964년), 동양언론문화재단 이사(1966년), 한국신문회관 이사(1967년), 서울중앙YMCA 교육부 위원(1968년), 서울특별시 문화위원회 심사위원(언론부분, 1973년) 등의 언론계 실무 활동을 하였다. 또한 이와 함께 관련 전문가 회의와 좌담회 등에 활발히 참여하여 한국 언론의 성장과 발전에 크게 공헌하였다.

1-2. 최준의 언론사 연구

전술한 바와 같이 최준의 대표적 저서는 『한국신문사』라 할 수 있다. 자신이 “이 저서는 나의 주전공(主專攻)에 속하는 것”이라고 밝힌 것처럼 최준은 평생 동안 한국 언론사 연구에 심혈을 기울였다. 언론사에 조금이라고 관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최준하면 먼저 『한국신문사』를 떠올릴 것은 자명한 일이다. 이 책은 1960년에 초판이 발행(국판 400면, 일조각)되었고 여러 번 중판(重版)되었다. 그 후 『한국신문사』는 구성체계가 자료 중심의 편년사여서 항상 “다시 쓸 생각이 간절하였고, 중판만을 계속할 수 없어 사실과 어긋난 곳을 수정하고 1954년 이후부터 5.16 군사쿠데타까지 새로 추가하여 1970년 증정판(增訂版)을 내놓았다.” 이 증정판도 여러 번 중판(重版)되었다. 이와 같이 최준의 『한국신문사』는 그의 주 전공 저서이자 중판을 거듭한 대표적 역저이고, 당시 대학에서 언론학을 전공하는 학생은 물론 언론계 현역으로 근무하는 언론인들의 필독 도서 중 하나로 널리 인식될 정도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저서는 “학문적인 성장과 더불어 역시 근본적으로 다시 쓰겠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³⁾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그의 학문적 노고와 열정이 담겨있으면서도 동시에 본격적 역사서로서의 한계를 일정 부분 노정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한국신문사』는 한 마디로 최준의 한국 언론사 연구에 대한 집념과 자료 수

3) 최준, “증정판을 내면서”, 증정판 『한국신문사』, 일조각, 1977년.

집 열망의 결실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저서이다. 특히 책의 발행 및 자료의 수집에 있어서 역경과 시련이 거듭되었다. 먼저 발행과 관련하여 최준이 “한국신문사를 엮기 시작한 것은 해방되던 해인 1945년 10월 1일부터였다. 탈고되어 조판된 것이 바로 6.25 공산동란이 일어나기 2개월 전인 1950년 4월이었다. 공산군의 서울 진격과 더불어 46판 380 페이지의 조판은 공산주의자들의 손에 깨어졌다. 이 때 나는 공산치하의 서울에서 3개월 동안 숨어 있다가 간신히 부산으로 피난하여 다시 집필을 시작한 것이 이 책이다.”고 이 책 발행의 어려움을 피력하고 있는 것처럼 우여곡절의 발행 과정을 겪고 출판되었다.⁴⁾

또한 『한국신문사』는 그의 연구 열망과 자료 수집의 어려움 속에서도 집념을 가지고 일구어낸 역작이었다. 최준은 식민치하에서 후손에게 정신적 도움이 되면서 남이 하지 않은 것이 무엇일까 번민하다가 민족문화말살의 산 증인인 ‘한국 신문의 사적 연구’를 하기로 결심하였다. 그리고 이를 위해 일본 메이지 대학 신문고등연구과에 입학하였다. 또한 도쿄 시내 헌책방은 물론 지방에까지 가서 일본 정부의 언론정책과 대한동향 등의 문헌 및 참고서적을 구입 혹은 빌어서 연구 자료를 모았다. 물론 한국 신문에 대한 자료를 얻는 데는 많은 애로와 고통을 감수해야한 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다음의 인용문에서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일제식민지하의 비극적 사회현실에서 ... 최준 교수는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떤 것으로 이 나라의 조국광복에 이바지할 것인가” 등등 인생의 기로에서 많은 번민에 빠지게 되었다. 이 때 최준 교수는 첫째로는 “이 거래의 후손에게 정신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이 무엇이며, 둘째로는 “남이 하지 않은 것을 해 보자”는 결심으로 갈 길을 굳혔다. 그것은 민족문화말살의 산 증인인 ‘한국 신문의 사적 연구’였다. 우리나라의 신문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난 1880년대로부터 개화기와 일제식민지하의 민족지, 그리고 그 밖의 언론현상에 대한 사적 체계를 세우는 작업이었다. 그리하여 ... 일본으로 유학하여 우선 이러한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학문적 바탕의 뒷받침이 있어야 함을 깨닫고 메이지 대학 법학부 신문고등연구과에 입학하고, 한국신문사 연구를 위한 자료 수집에 나섰다. 도쿄 시내에 있는 고본상(헌책방)은 물론 지방에까지 가서 우리나라에 대한 일본 정부의 언론정책과 그때마다의 대한동향 등의 문헌 및 참고서적을 구입 혹은 빌어서 연구 자료를 모았던 것이다. ... 특히 도서관을 드나들면서 한국신문에 대한 자료를 얻어 내는 데는 많은 애로와 고통을 감수해야한 했다. 비록 만학이긴 했으나 도쿄생활은 훗날 최준 교수의 학문과 인생의 성숙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던 것이다.”⁵⁾

최준의 증정판 『한국신문사』(일조각, 1983년 중판)을 통해 그 내용을 살펴보면 전술한 바와 같이 편년사로 구성되어 있고 ‘제1장 신문전사적 현상’부터 ‘제26장 언론 자유의 쟁취(1957~1961)’까지 한국 신문의 투쟁적 성장 과정과 수난사를 연대기적으로 기술한 본문 445면과 15면의 색인 등 총 460면(국판)의 단독 저서이다. 이 저서는 한국 신문의 역사가 민족의 투쟁사이며, 근·현대사를 꿰뚫은 민족이면서이고, 언론자유를 부르짖는 투쟁사라고 기록하고 있다. 신문기자는 애국투사이며 이들

4) 최준, “서문”, 증정판 『한국신문사』, 일조각, 1977년.

5) 최진우, “최준 교수의 학문과 인간”, 차배근 외, 희관 임근수 박사 화갑기년논총 『한국 신문학 50년사』, 정음사, 1977년, 124쪽.

이 기록한 기사는 자유와 해방과 독립의 취재기록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신문 자체의 현대화는 물론 식민지의 질곡 속에서 온갖 제약을 박차가면서 한국의 현대화를 꾀한 신문의 업적은 찬연히 빛날 것이라고 찬미하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최준의 대표적 언론사 연구 저서인 『한국신문사논고』는 『한국신문사』에서 간략하게 언급한 것을 그 후 자료를 찾아 보다 심도 있게 연구하여 발표한 기존의 논문을 엮어 편찬한 책이다. 1976년 4월 국판 364면으로 역시 일조각에서 발행되었다. 그는 이 책의 “서문”에서 그가 30년 동안 각 학술지에 발표했던 논문 중에서 우리나라 신문 역사에 관한 13편의 논문을 모아 출판한 것이며 시기적으로는 조선시대부터 8.15 광복 때까지로 국한되어 있고 일본의 식민통치시기의 논문의 비중이 가장 많으며 일제의 대한 언론정책이 그 중 가장 대표적 논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언론전개의 변천과정, 한성순보와 뉴스원, 고종시대 커뮤니케이션 형태, 독립신문 판권과 한미교섭, 국채보상운동과 프레스 캠페인, 양기탁 구속과 외교교섭, 을미당명자의 나환(강제 귀환)과 한일 외교분쟁, 일진회의 언론활동, 군국일본의 대한언론정책, 교포신문과 일본의 침략정책, 일인계 국문판 신문의 유형, 3.1운동과 언론의 투쟁, 식민통치시대 언론투쟁 등의 주제를 다루고 있다.

최준의 언론사 연구의 꿈은 당대는 물론 후대에 더욱 심도 있는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바랐다. 그는 한국 언론사 연구의 현실을 비판하고 앞으로 보다 집중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그의 연구가 이정표가 되었으면 했다. 즉 한국의 언론사는 아직도 개척시대에 머물러 있고 앞으로 더욱 신진기예(新進氣銳)들의 집중적 연구가 시급하며 꾸준한 사료 수집과 면밀히 분석·검토하는 성실한 학도들의 연구업적이 계속 나타나기를 바라며 이 책이 그 길잡이가 되기를 바랐다.⁶⁾

1-3. 최준 언론사 연구의 역사적 의미

전술한 바와 같이 최준은 초기 한국 언론학 성립과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특히 일제식민지하에서 조국 광복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일이 한국 신문의 사적 연구라고 생각하고 이를 위해 일본에서 관련 학문을 섭렵하고 자료를 수집·정리하여 『한국신문사』를 저술하였다. 또한 『한국신문사』의 체제상 중요한 주제이면서도 깊이 있게 다루지 못한 주제를 보다 심도 있게 연구하여 여러 관련 전문지에 발표하고 이를 엮어 편찬한 『한국신문사논고』를 발간하였다.

이러한 최준의 연구 업적은 한국 언론사 연구 영역에 있어서 독보적인 위치를 갖게 하였다. 예컨대 최준의 통사로서의 『한국신문사』와 이를 보완하는 보완사·부분사·개별사적 특성을 가진 『한국신문사논고』는 한국 언론사 연구를 개론서와 각론서 형식으로 체계화를 시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기존에 발행된 적은 수의 언론사 연구 논저를 양적·질적으로 한 단계 뛰어넘는(통사와 보완적 부분사 그리고 폭넓은 자료의 새로운 발견적 제시라는 점에서) 체계와 수준을 갖추고 있다고 말할 수

6) 최준, “서”, 최준, 『한국신문사논고』, 일조각, 1976년.

있을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은 이후 일정기간 동안 대학의 언론학 관련 학과에서 대부분 최준의 『한국신문사』를 교재로 채택하고, 이후 언론사 연구 논문에서 『한국신문사』와 『한국신문사논고』가 주요한 참고문헌으로 인용되는 사례가 많았다는 점에서도 잘 알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최준은 한국 언론사 연구를 한 단계 발전시키고 이후 언론사 연구의 토대를 구축하는데 크게 공헌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최준의 영향으로 언론사 연구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그의 지도하에 신진 언론사 연구자들이 여러 명 배출되게 되었다는 점에 있어서도 그의 기여를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나 최준의 언론사 연구는 그가 고백하고 있듯이 자료 중심의 편년사이고, 일제 식민지하의 신문을 과도한 민족주의적 관점에서 기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다시 말하면 그의 한국 언론사 연구는 편년사, 사건사, 나열사이며 편향된 민족주의적 관점이 지나치게 부각된 역사 기술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일정 부분 한계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참고문헌>

최준, 『한국신문사』, 일조각, 1960년.

최준, 『한국신문사논고』, 일조각, 1976년.

최준, 증정판『한국신문사』, 일조각, 1977년.

야농 최준 교수 화갑기념논문집 편찬위원회, 『야농 최준 교수 화갑기념논문집』, 중앙대학교 출판국, 1973년.

최진우, “최준 교수의 학문과 인간”, 차배근 외, 희관 임근수 박사 화갑기념논문총 『한국 신문학 50년사』, 정음사, 1977년, 123~132쪽.

2. 임근수의 언론사 연구

2-1. 임근수의 생애와 언론 활동

임근수의 자는 이영(夷英)이며 호(號)는 희관(晞觀) 또는 추농(秋農)이고 본관은 경주(慶州)이다. 본향(本鄉)은 충주 달천(達川)이다. 임근수는 1916년 5월 1일 인천(仁川)에서 부친 임용환(林鏞煥)씨와 모친 경주 이씨의 3남으로 출생하고 그의 나이 63세가 되는 1979년 1월 21일 타계하였다. 부인 정복순(鄭福順, 본향 청주) 여사와의 사이에 3남 1녀를 두었다. 주위로부터 자녀 복이 많다는 소리를 듣기도 했으며 특히 3남(현진)은 서울대학교 사회학교 교수로 현재 재직 중에 있다.

임근수는 일찍이 서당에서 한문을 수학하고(보통학교 이전), 인천공립상업학교(한성 외국어학교 인천분교의 후신, 현 인천고등학교)를 거쳐 연희전문(문과과정 4년, 연구과정 2년, 현 연세대학교)에서 사학을 전공하였다. 졸업 후에는 영창중학교(현 성

동중·고등학교)와 배재중학교에서 잠시 교직에 종사하였다. 광복 후 언론계에 투신한 이후로는 언론학계와 언론계에서 교육, 연구, 실무 등 다방면에 걸쳐 언론 활동을 전개하였다. 그의 생애를 언론학계 활동(교육 활동, 연구 활동)과 언론계 실무 활동으로 나누어 간략히 기술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⁷⁾

임근수는 미국 국무성 초청으로 도미(渡美, 1954년~1955년)하여 Columbia 대학에서 신문학을 연구한 바 있다. 1968년 2월에는 중앙대학교 대학원에서 『근대신문의 성립에 관한 연구』라는 논문으로 국내 언론학 분야에서 최초로 문학박사 학위를 수여받았다. 임근수는 서울신문학원 강사(1953년~1959년), 홍익대학 신문학과 조교수(1954년~1955년), 중앙대학교 문리대 조교수(1955년~1957년), 중앙대학교 법정대 신문학과 교수(1957년~1968년) 등을 거쳐 서울대학교 신문대학원과 사회과학대학 신문학과 교수(1968년~1979년)를 역임하였다. 이와 같이 임근수는 미국에서 신문학을 연구하고, 국내에서 처음으로 언론학 분야에서 박사학위를 수여받았으며, 서울신문학원·홍익대학·중앙대학교·서울대학교 등에서 국내의 신문학 교육을 탄생시키고 발전시키는 데 주역의 일익을 담당한 초기 한국 신문학계를 이끌어 온 선구적 인물 중의 한 분이었다.

임근수의 저서는 모두 5권이다. 이 가운데 4권은 생전의 저서이며 나머지 1권은 사후에 발간된 추모 저서이다. 생전에 발간된 4권의 저서 가운데 2권은 단독 저서이고 2권은 공동 저서이다. 『신문발달사』(정음사, 1967년)와 『매스 커뮤니케이션 원론』(민중서관, 1977년)이 단독 저서이고, 공동 저서는 *Mass Communication in Asia : A Book of Readings*(Singapore : Asian Mass Communication Research and Information Center, 1975)와 *A History of Mass Communication in Asia*(Singapore : Asian Mass Communication Research and Information Center, 1975)이다. 나머지 1권은 사후 5년이 되는 1984년 1월 기준에 발표된 논문 중 26편만을 골라 이를 다시 편의상 5개편으로 묶어 추모 저서로 발간한 『언론과 역사』(정음사, 1983년)이다.

또한 임근수는 40여 편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회관 임근수 박사 연보’에 기록된 바에 따르면, 첫 발표 논문은 1961년 중앙대학교 『법정논총』 제12집에 발표한 “신문의 용어·용자문제에 대한 소고”이다. 그 밖에도 “한국신문구조론 서설”(『신문연구』 제5권 2호, 1961년), “동양에 있어서 근대신문의 생성과정에 대한 비교사적 연구”⁸⁾(『아세아연구』 제36호, 1962년), “편집권의 옹호와 독립”(『신문평론』 제2호, 1964년), “신문의 보급률에 관한 소고”(『한국사회학』 제4집, 1968년), “매스 커뮤니케이션 사업의 본질에 대한 일고찰”(『신문연구소학보』 제6집, 1969년), A

7) 임근수의 언론사 연구는 특히 회관 임근수 박사 화갑기념논총인 『한국신문학50년사』(정음사, 1977년)와 회관 임근수 박사 논총인 『언론과 역사』(정음사, 1984년)를 중심으로 하여 집필하였다. 이 가운데서도 특히 『한국신문학50년사』의 “현사”, “회관 임근수 박사 연보”, 이대룡의 “임근수 신문학의 체계와 방법”, 그리고 『언론과 역사』의 말미에 수록된 차배근·박정규의 “발문”에서 많은 부분을 참조하여 작성하였다.

8) 밑줄 친 논문은 『신문발달사』와 함께 임근수의 논문 “한국신문학의 성립과정과 그 연구현황의 계보적 고찰”(『저널리즘』, 1976년 봄호)의 후미에 첨부한 <한국신문학논저>에 수록된 것임. 본인이 작성한 논문에 소개된 본인의 언론학 연구 업적이라는 점에서 주요 연구 업적으로 이해해도 좋을 것 같다.

History of English-Language Journalism in Korea(『신문연구소학보』 제7집, 1970년), “언론인으로서의 위암”(『나라사랑』 제5집, 1971년), “언론인으로서의 남궁억”(『나라사랑』 제11집, 1973년), “20세기 초반의 동양에 있어서의 매스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비교사적 연구(其一)”(『신문연구소학보』 제10집, 1973년), “한국 신문학사 서설”(『신문학보』 제6호, 1973년), “20세기 초반의 동양에 있어서의 매스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비교사적 연구(其二)”(『신문연구소학보』 제11집, 1974년), “한국 커뮤니케이션사 연구의 방법에 관한 일고찰”(『신문연구』 제16권 제1호, 1975년), “한국신문학의 성립과정과 그 연구현황의 계보적 고찰”(『저널리즘』, 1976년 봄호), “Etat actuel des publications des mass-media et problemes qui se posent a ce sujet”(Revue de Coree Vol. VIII, No. 1, Commission Nationale Coreene pour L'UNESCO, 1976년), “한국 언론 30년사”(『해방30년사』, 서울대학교 대학신문사, 1976년), “개항백년의 한국 언론”(『신동아』, 1976년 7월호) 등 거의 언론학 전 분야에 걸쳐 여러 편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또한 임근수는 해방 후 코리아 타임즈(Korea Times) 기자(1945년~1948년), 외무부 의전과장(1948년~1949년), 서울신문사 상무이사(1953년~1955년, 1957년~1959년), The Korean Republic사(현 Korea Herald) 감사(1953년~1961년), 세계통신사 이사(1957년~1960년) 등과 같이 언론 현업 관련 활동을 계속하였다. 그리고 그의 이러한 다양한 언론 실무 경력은 그로 하여금 언론 현업 문제에 대한 학문적 관심을 계속해서 갖게 하는데 일정 부분 기여했던 것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2-2. 임근수의 언론사 연구

임근수의 주 전공은 신문사학(新聞史學)이라 할 수 있다. 이대룡의 말처럼, 그의 언론사 연구는 “신문사학, 특히 구미신문사로부터 출발하였다. ... 영·불·독에 통하는 그의 어학력과 연전에서의 6년에 걸친 역사 전공은 구미신문사를 교육·연구하기에 적격이었다.”⁹⁾ 이러한 학문적 배경을 기반으로 8년의 각고 끝에 전술한 임근수의 역작 『신문발달사』가 발행되었다.

임근수의 『신문발달사』는 중앙대학교 교수 시절인 1967년에 초판이 발행(국판 413쪽)되었다.¹⁰⁾ 임근수의 최초의 저서인 이 책은 ‘자유주의적 언론관’의 기초 하에 서술되었으며, 거의 불모지나 다름없는 구미(歐美)의 신문사를 풍부한 주석 및 참고문헌과 함께 방대한 분량으로 기술하였고, 신문사학의 여러 문제들을 명확히 제시하였으며, 현대사회에서의 신문의 제 문제에 이르기까지 검토하고 있는 대표적 업적이라 할 수 있다.

9) 이대룡, “임근수 신문학의 체계와 방법”, 『한국신문학50년사』 회관 임근수 박사 화갑기념논총, 정음사, 1977년, 144쪽.

10) 임근수의 『신문발달사』 발행연도는 모두 1970년으로 명기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인터넷을 통해 1967년에 초판이 발행된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책은 특히 특수사(特殊史)로서의 신문사라는 기존의 인식을 일반사(一般史)로서의 신문사로 인식을 전환하게 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예컨대, 원시사회의 커뮤니케이션, 고대사회의 신문적 현상, 중세의 신문현상, 근대 신문의 성립·발전·쇠퇴, 현대 신문 등으로 시대를 구분하여 기술하고 있다는 것이 그 예이다. 이와 관련하여 박유봉은 회관 임근수 박사 논총인 『언론과 역사』의 ‘머리말’에서 임근수의 저서가 “신문의 발달을 수백 년으로 보지 않고, 수만 년에 걸친 장구한 인간 커뮤니케이션의 흐름 속에서 파악해 나가고 있었다.”는 점에서 ‘구미를 중심으로 한 일반 신문사’이며 이런 점에서 “이 분야의 대저라고 할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은 다음과 같은 그의 저서 『신문발달사』의 서문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다. 즉 “신문의 흐름을 통해 본 역사의 줄거리가 너무나 경시되어 온 사실이 인식되는 동시에, 그 중요성의 재발견이 강조되어야 함을 알게 된다. 그리고 보면 신문사라는 특수사는 비단 신문이론 및 실천의 뒷받침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일반사 이해에 있어서도 적지 않게 중요한 요소가 되어진다.”는 부분이 그것이다. 또한 임근수는 『신문발달사』를 통해 신문사학에서의 ‘사관의 정립, 방법론의 제시, 명확한 시대구분’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근대 신문의 성립과 근대 신문 이후의 구미 각국에 있어서의 현대 신문의 제 문제를 비교신문사적으로 깊이 있게 천착하고 있다.¹¹⁾

그리고 구미 언론사 연구 이후 위에서 제시한 발표 논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임근수는 한·중·일 3국 중심의 동양 신문사, 그리고 이후에 있어서의 한국 신문사, 커뮤니케이션사 연구 및 체계화 연구로 연구 관심을 확대·발전시켜 나갔다. 이에 관해 혹자는 한국 언론사를 비교사적으로 연구하기 위해서 구미 언론사와 동양 언론사를 먼저 연구했는지도 모르겠다고 기술하기도 한다. 이 점은 다음의 인용문에서 발견 할 수 있다.

“아마도 선생께서는 애초부터 한국의 커뮤니케이션사에 관심을 가지고 계셨지만 그것을 보다 폭넓고 깊이 연구하시기 위한 방편으로 세계신문사, 그리고 동양신문사 순으로 접근해 들어오셨던 것 같다.”¹²⁾

또한 그를 추모하는 연구 논총인 『언론사 역사』의 편찬 체계가 그의 기존 발표 논문을 ‘세계 언론의 발자취’와 ‘한국 커뮤니케이션의 역사’를 고찰한 후 이를 기반으로 당대의 언론과 언론사업을 구체적으로 ‘언론사업의 본질과 그 현실’, ‘한국 신문의 구조와 과제’, ‘한국의 신문학 연구와 교육’의 순으로 엮어 출판하고 있음을 볼 때, 임근수의 언론사 연구는 다분히 그 지향점이 내재적이며 구미와 동양의 그것과의 비교 연구를 통해 당대 한국 신문 현상과 신문학 연구와 교육의 현황을 체계적으로 천착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알 수 있다. 그가 남긴 “언론이 남겨 놓은 기

11) 이대룡, 앞의 글, 144~148쪽.

12) 차배근·박정규, “발문”, 임근수, 『언론과 역사』 회관 임근수 박사 논총, 정음사, 1984년, 586쪽.

록은 그대로 역사로서 남게 된다.”, “언론인들은 ‘History Maker’라는 사명을 깊이 인식하고 그러한 사명감 아래에서 언론 활동에 직접 종사하거나 언론 현상을 연구해야 된다.”는 경언도 그가 비교사적 언론의 역사 연구를 도구로 하여 궁극적으로 당대의 한국 언론 현상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언론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데 그 목표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한다. 이런 점에서 그의 언론사 연구는 실천을 궁극의 지향 점으로 삼는 실천적 학문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결국 임근수의 언론사 연구는 한마디로 신문사학으로 규정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언론과 역사』 “머리말”에서 박유봉은 “그의 신문사학은 사관의 정립, 방법론의 제시, 명확한 시대 구분을 확립함으로써 신문사학의 체계화를 이루었다. 그의 신문사학에서는 비교사적 방법론이 시대와 사회를 연결하고 현실성과 가능성을 관련지우며, 경험적인 것과 선형적인 것을 서로 이어주고, 인문주의적 방법과 실증주의적 방법을 통일시키는 매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 신문사학은 희관의 비교 신문사학적 방법에 의하여 한 단계 제고되었다고 볼 수 있다.”고 임근수의 언론사 연구를 평가·기술하고 있다.

2-3. 임근수 언론사 연구의 역사적 의미

임근수는 63세라는 젊은 나이에 홀연히 세상을 떠났지만 그의 생애는 언론계와 언론학 교육 및 연구에 커다란 족적을 남겼다. 전술한 바와 같이 그가 처음 연구한 구미신문의 발전 과정에 대한 연구는 한국 신문학의 체계화와 토착화 작업의 기반이 되었다. 그의 연구는 특수사로서의 신문사를 일반 신문사로, 동양 3국으로, 다시 한국으로, 신문사학으로 연구의 초점을 확대·발전시켜 나갔다.

이 글에 주어진 분량의 제한으로, 많은 연구자들이 임근수를 한국 신문학의 선구자라고 부르는데 주저하지 않는 이유를 한국 언론사 연구에 대한 공헌이라는 점에서 몇 가지 제시하는 것으로 결론을 대신하고자 한다. 첫째, 그의 연구가 다방면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거의 불모지나 다름없는 방대한 구미의 언론사를 체계적으로 정리·제시하여 이것이 한국 언론사 연구의 기초가 되었다는 점이다.

둘째, 임근수의 언론사 연구가 이전의 언론사 연구와 차별되는 독자적인 방법론을 가지고 접근하였다는 것이다. 소위, “비교신문사적 연구 방법론이 그것인데, 기존의 연구가 통시적 고찰에 중점을 두었던 것에 비해 임근수 언론사 연구는 공시적 연구, 다시 말하면 세계 속의 그리고 동양 속에 있어서의 한국 신문의 위치와 특질을 밝혀내려는 것이다.”는 것이다.¹³⁾

셋째, 마지막으로 그의 언론사 연구 초점이 구미에서 동양으로 그리고 다시 한국으로 이동하면서 특히 이전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한국 신문의 구조와 과제, 특히 한국의 신문학 연구와 교육의 문제를 매우 정치하게 정리·분석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런 점으로 임근수의 주 전공을 신문사학(新聞史學)으로 규정하게 된 것

13) 이대룡, 앞의 글, 149쪽.

이라고 사료된다.

끝으로 이 글을 준비한 시간이 부족했고, 더구나 언론학계의 거목인 두 분의 언론사 연구를 동시에 제한된 지면 속에 담아낸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음을 고백하고자 한다. 무엇보다도 천학인 필자가 두 분 대학자의 언론사 연구의 의미를 논한다는 것이 매우 경외스러운 일이어서 심적 부담이 적지 않았다. 헤량과 질정을 부탁드리며, 부족한 부분은 후에 다시 수정·보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글을 맺는다.

<참고문헌>

임근수, 『신문발달사』, 정음사, 1967년.

임근수, 『매스 커뮤니케이션 원론』, 민중서관, 1977년.

임근수, 『언론과 역사』 회관 임근수 박사 논총, 정음사, 1984년.

차배근 외, 『한국 신문학 50년사』 회관 임근수 박사 화갑기념논총, 정음사, 1977년.

이대룡, “임근수 신문학의 체계와 방법”, 차배근 외, 『한국 신문학 50년사』 회관 임근수 박사 화갑기념논총, 정음사, 1977년, 141~152쪽.

차배근·박정규, “발문”, 임근수, 『언론과 역사』 회관 임근수 박사 논총, 정음사, 1984년.